
정책참고자료

2017-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사회적기업’ 고충·애로 청취	13
-------------------------	----

3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의 내실화·활성화·저변확대 추진	15
-----------------------	----

4 교육부

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발표	18
-------------------------	----

5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실천노트 공모 우수사례 시상	25
-----------------------------	----

6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단체 선정	29
-----------------------------------	----

7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에 도전하세요	34
----------------------	----

8 환경부

내게 필요한 환경정책은? 기업지원 안내서로 쉽게 찾기	37
-------------------------------	----

9 고용노동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	42
---------------------------------------	----

10 여성가족부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나눔터	46
---------------------------	----

11 국토교통부

달동네 등 16곳, 새뜰사업으로 삶의 질 높아진다	50
-----------------------------	----

12 해양수산부

창업 성공 신화를 같이할 관광벤처 푸드사업 우수 사업 선정 결과	55
--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17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학교, 18개 초등학교 선정 -
- 「어린이 훈련 가이드북」 개발·활용을 통한 훈련 내실화 도모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해 최초로 시범운영한 「어린이 안전한 한국훈련 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변경하여 교육부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16년 어린이 안전한 한국훈련 캠프 운영결과

- 대 상 : 2개교(수원 정자초, 평택 청옥초) 시범 운영
- 내 용 : 5주간 어린이 훈련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만들기, 대피지도 작성, 실제훈련 실시 등)
- 성 과 : 재난 시 대피시간 단축 (1시간→15분), 대피방법 인지도 상승 (23%→93%),

-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17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확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1월),

* (1~4주차) 학습·훈련기획 및 설계·현장체험 등, (5주차) 실제 현장훈련 실시

-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공모와 심사를 거쳐 총 18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2월)

-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어린이 훈련 민간전문가’가 5주간의 훈련 전(全) 프로그램에 참여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교별 『전담멘토링*』 제도를 운영한다.

* 팀별 2개 학교를 대상으로, 2인 1팀('16년 참여전문가+'17년 신규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또한 ‘16년 훈련사례 분석을 통해 작성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을 일선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훈련 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하여 훈련평가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하고 훈련참여 학교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오늘(3.15)은 해당 18개 초등학교 교사, 교육청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훈련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3.15(수) 10:30~ / 국민안전처 소강당

(주요내용) '17년 추진계획 및 '16년 시범운영 사례, 어린이 훈련 가이드북 설명 등

-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어린이 때부터 재난대피 훈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한 안전의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 지지 않는다.” 며
- “어린이가 미래의 성장 동력인 만큼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의식을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 훈련개요

- (주관/기간) 국민안전처·교육부 공동 / 4.24 ~ 5.26 【5주간】
- (참여대상) 18개 초등학교(시·도별 1~2개) 및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 (주요내용) 어린이가 직접 재난유형 선정, 훈련계획 수립 등 프로그램* 운영
* (1~4주차) 학습·훈련기획 및 설계·현장체험 등, (5주차) 실제 현장훈련 실시

【그간 추진사항】

-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 제작 추진 ('16.6월~, 국립재난연구원)
- ▶ '17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 관련 교육부 사전협의 (5회)
- ▶ '17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상학교 최종 선정 (1.26, 18개 초등학교)

□ 추진계획

1단계 (교육부 주관)	2단계 (국민안전처 주관)	3단계 (참여학생 주관, 1~4주차)	4단계 (대상학교 주관, 5주차)	5단계 (학생·민간전문가 주관)
대상 학교 선 정	전 문 가 그룹 구 성 및 매 칭	훈 련 기 획 · 설 계 현 장 체 험 등	실 제 현 장 훈 련	결 과 도 출 및 개 선 사 항 마 련
1.16.~2.10.	2.1.~2.24.	4.24.~5.19.	5.22~5.26.	5.29~6.2.

- (1단계) 교육부 주관, 17개 시·도별 대상학교 공모·선정
- (2단계) 국민안전처 주관, 권역별 민간전문가그룹 구성 및 참여 학교별 매칭
- (3단계) 학생이 직접 주관, 재난유형 선정 등 세부훈련 작성, 사전 현장체험 등 5주간 프로그램 진행 (※ 가급적 전교 학생 참여 유도)
- (4단계) 학교 주관,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재난대피 현장훈련 실시
※ 학교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훈련지원금 (국민안전처·교육부 매칭) 교부
- (5단계) 학생·민간전문가 주관, 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 우수기관 및 유공자는 국민안전처(대상 : 기관·학생)·교육부(대상 : 학교·지도교사 등) 장관표창 수여

□ 향후계획

- 어린이 훈련 가이드북 배포 및 관계자 설명회 : 3.15.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운영 : 4.24.~5.26.

연 번	교육청명	학 교 명	비 고
합 계	17개 교육청	18개 학교	
1	서 울	서울서빙고초등학교	
2	부 산	학 사 초 등 학 교	
3	대 구	대구감삼초등학교	
4	인 천	인천송의초등학교	
5	광 주	효 천 초 등 학 교	
6	대 전	대전동도초등학교	
7	울 산	동 평 초 등 학 교	
8	세 종	조치원대동초등학교	
9	경 기	수 진 초 등 학 교	
10		용인둔전초등학교	
11	강 원	정 선 초 등 학 교	
12	충 북	동 광 초 등 학 교	
13	충 남	홍 성 초 등 학 교	
14	전 북	한 솔 초 등 학 교	
15	전 남	목포이로초등학교	
16	경 북	해 마 루 초 등 학 교	
17	경 남	석 전 초 등 학 교	
18	제 주	광 령 초 등 학 교	

□ 개 요

- 일시/장소 : '17. 3. 15.(수) 10:00 ~ 15:30 / 국민안전처 소강당 (205호)
- 주 재 : 재난대응정책관
- 참 석 : 총 90여명 (국민안전처 5, 교육부 2, 시도 교육청 17, 대상학교 36, 민간전문가 18)

□ 주요내용

(1부) 관계자 대상

- '17년 안전한한국훈련 및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 계획 등 (국민안전처·교육부)
- '16년 어린이 안전한한국훈련 캠프 운영 사례 (청옥초·정자초 교사)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 소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부) 민간전문가 대상

- '16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세부 프로그램 설명 ('16년 훈련담당자)
- 훈련 컨설팅 방법 및 주요 사례 소개 (박남수 교수), 의견수렴 등

□ 진행계획

구분	시 간 (240')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120')	10:00 ~ 10:05 5'	○ 인사말씀	재난대응정책관
	10:05 ~ 10:45 40'	○ '17년 안전한한국훈련 및 어린이 훈련 추진계획 등	국민안전처 교육부 담당 사무관
	10:45 ~ 11:15 30'	○ '16년 어린이 안전한한국훈련 캠프 운영사례	청옥초·정자초
	11:15 ~ 11:45 30'	○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가이드북 소개	박소순 연구관
	11:55 ~ 12:00 5'	○ 마무리	재난대응정책관
2부 (120')	13:30 ~ 14:30 60'	○ '16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세부 프로그램 설명	'16년 훈련담당자
	14:30 ~ 15:00 30'	○ 어린이 훈련 컨설팅 방법 및 주요 사례	박남수 교수
	15:00 ~ 15:25 25'	○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참석자 전원
	15:25 ~ 15:30 5'	○ 마무리	재난관리총괄과장

□ **청옥초등학교**

- (재난유형 및 훈련방침) 인근단지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 실전 대피훈련에 중점을 두고 대피 시 체험을 통한 캠프운영 전·후 비교에 중점
- 일자별 주요 훈련내용

1주차(4.22)	불시대피훈련, 대피지도·매뉴얼 알아보기
↓	
2주차(4.27)	화학물질유출관련 산업단지 현장방문(기아자동차 화성공장)
↓	
3주차(5. 3)	매뉴얼·개인별 임무 카드 작성
↓	
4주차(5.13)	모의훈련 실시, 대피지도 작성
↓	
5주차(5.20)	현장훈련 실시(1주차 불시대피훈련과 비교)

□ **정자초등학교**

- (재난유형 및 훈련방침) 지진·화재발생을 대상, 재난상황시 기관별(시청, 소방관, 경찰, 보건소 등) 역할체험에 중점
- 일자별 주요 훈련내용

1주차(4.20)	재난(지진) 특성 및 대응요령, 역할팀 나누기
↓	
2주차(4.29)	재난(화재) 특성 및 대응요령, 팀별 매뉴얼 작성
↓	
3주차(5. 4)	팀별 역할실습, 대피지도 작성
↓	
4주차(5.13)	수원소방서 기관방문(역할실습), 모의훈련 실시
↓	
5주차(5.19)	현장훈련 실시(관계기관별 역할수행)

□ 훈련캠프 개요

- 기 간 : '16. 4.20.(화) ~ '16.5.20.(금)
- 훈련기관 : 경기도 평택 청옥초 (화학물질), 수원 정자초 (지진화재)
* 시범학교 공모(17개 학교 신청) 및 심사·선정(3.23)
- 참여대상 : 초등학교 전교생 (정자초), 5, 6학년 (청옥초) 및 교사
* 특히, 청옥초 안전동아리(30명)와 정자초 119소년단(39명)이 주도적으로 참여
- 협조기관 : 교육부, 道 교육청, 지자체, 소방(송탄, 수원), 군(육군 51보병사단, 해군2함대), 경찰(수원중부), KIA 화성공장, 대한적십자사 등 16개 기관 참여

□ 훈련성과

<시범운영 주요성과>

- ❖ 어린이가 스스로 주도하고 체험하는 훈련모델 제시로 안전교육효과 극대화
* 기존 선생님 주도의 일회성 대피훈련에서 탈피, 어린이가 주도하는 성장형 훈련프로그램 마련
- ❖ 훈련 쏠 과정에 민간 컨설팅단 지원, 어린이 주도 훈련의 전문성 보완 및 평가환류
- ❖ 지자체, 군, 소방 등 학교 인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1. 스스로 주도하고 체험하는 훈련모델 제시로 안전교육 효과 극대화

- 어린이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참여형 훈련프로그램 운영
 - 위험요소 알아보기, 나만의 임무카드 작성 등 5주간의 자기 주도적 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적극적 참여유도와 재미있는 훈련이미지 제고
* (설문결과) 주위친구 적극 참여유도(83%), 내년도 훈련 재참여 의향(76%)
- 다양한 재난대응 체험 기회 제공으로 안전의식 성장과 자신감 부여
 - 기존 화재대피 훈련 등 수동적 참여 탈피, 안전유도팀, 환자이송팀 등 다양한 역할 체험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형·성장형 학습마당 제공

* 재난시 대피방법 인지 (23%→93%), 대피시간 단축 (1주차 1시간 → 5주차 15분)

2. 훈련 전 과정에 민간 컨설팅단 지원으로 전문성 보완 및 평가환류

- 학생들의 능동적인 훈련 참여에 중점을 두되, 재난유형별 맞춤형 컨설팅단 지원으로 전문성 보완 등 어린이참여 훈련의 질 강화
- 훈련기획부터 실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성과측정으로 향후 어린이 훈련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3. 군·소방·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

- 캠프운영 과정에 지자체, 군, 소방 등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참여,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안전문화인식 제고
 - 개인임무카드·대피지도·매뉴얼작성 시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한 작성방법 등 지도역할 수행
 - 재난유형별 현장방문*을 통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이해도 향상

* KIA 화성공장(유해화학물질유출), 수원소방서, 수원중부경찰서(지진·화재)

4. 홍보강화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 중앙·지방언론 등에서 훈련캠프 기획의도와 아이들 성장과정을 집중 보도하여 국민참여형 훈련으로서의 공감대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동아일보 기획취재(4.25), KBS 2 생생정보 저녁(5.23), K-TV, 지역언론(경기일보) 등
 - 훈련 전 과정 안전韓 TV, KTV 동행 취재, 아이들 성장과정 밀착 취재

* 언론보도내용 스크랩 (붙임 2)

5. 철저한 안전책임관제 운영으로 사고 없는 어린이캠프 운영

- (안전책임관 운영) 기관별(학교, 소방 등)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토록

확인·점검하여 훈련캠프 전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진행

- (기타) 학교 안전동아리 활성화 계기마련, 유해화학물질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훈련 실시로 선생님과 학부모의 재난훈련에 대한 인식 전환 등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사회적기업' 고충·애로 청취 6일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 일환

- 사회적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일 권한대행이 주재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 장관회의' 후속 조치로서 6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회적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는 현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인의 권익보호 및 기업지원활동촉진을 위해 열린 이날 현장회의에는 사회적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여하여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를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청,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청 등 15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상담이 진행됐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집중토론 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날 제기된 사회적기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 가능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민원사항은 기업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최단 기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는 국민권익위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탈북주민, 가정폭력피해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전국적으로 1,075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통해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다.

경제교육의 내실화 · 활성화 · 저변확대 추진 - 제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 기획재정부는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동 위원회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위원구성 : (민간) 교육 · 경제 · 언론 · 학계 및 노동계, 소비자분야 각 1인
(정부) 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

◇ 위원회에서는 “2017년 경제교육 방향”을 의결하였고,

- “EBS 경제교육 협력사업 추진계획”, “민간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설립현황 및 활동계획”, “경제교육종합포털 구축 보고”, “2017년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 주된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부처 및 민간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 학교안 경제교육의 내실화, 지역경제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학교안 경제교육과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수업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원연수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교사의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 특히, 중학교 사회교과서 내 경제단원이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어, 학기말 수업진행으로 진도를 못 맞추거나 프린트물로 대체되는 경제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단원의 사회교과서 내 앞부분 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경제교육 협력체계 강화,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수요발굴 및 강사육성,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지정 및 재원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경제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EBS의 방송·온라인 매체와 행복교육 박람회(교육부 주최)를 활용하여 경제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 특히, 경제교육종합포털에 정부부처와 민간경제교육기관이 보유한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정보를 집약하여 제공함으로써 기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17년 3월 중 경제교육종합포털(www.econedu.go.kr) 사이트 오픈

◇ 기재부 송언석 제2차관은

- 각종 미디어들과 인터넷이 실시간으로 쏟아내는 경제정보의 홍수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해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2017년 경제교육 방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경제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교육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 발표

- 100개교 대상 3년간 총 60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의 종합적 혁신 유도

- 교육부는 3월 14일(화)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이하 ‘매직**’)” 사업을 발표하며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에서 전국 직업계고 교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등

** **MAGIC** : **M**ake an **A**t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

- 이번 사업은 작년 4월 25일에 발표된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계획’의 후속 방안으로서 양적 확대노력과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다.

* 직업계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직업계열)+일반고 직업계열) 입학정원이 113천명 (19%)이나 입학수요는 147천명(24%)으로 약34천명의 초과수요* 존재 (‘15년 기준)

-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09년 이후 7년 연속 직업계고의 취업률 상승*하고 있으나,

* (‘09) 16.7% → (‘11) 25.9% → (‘13) 40.9% → (‘15) 46.6% → (‘16) 47.2%

- 직업계고 간 양극화*가 존재하여 취업률 상승폭 둔화와 전체적인 직업계고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농 간 또는 동일 지역 내 학교 간 취업률, 입학 경쟁률(총원율), 자격증 취득률 등에 있어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

- 특히, 직업계고의 학생 중 상당수가 학업무관심, 학업중단*·위기, 기초 학력 부족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 특성화고 학업중단자 추이 : (‘14) 8,586명 → (‘15) 7,009명 → (‘16) 6,519명

- 따라서 열악한 직업계고 대상 학교 거버넌스 및 경영 전략, 교수-학습 방법, 교원 전문성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의 전반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직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을 통해 연간 200억원을 직업계고 100개교에 3년간 ('17년~'19년) 차등 지원(1~3억원) 할 계획이다.
- 1단계('17년~'19년) 지원 후에는 100개교를 다시 선정하여 3년간('20년 ~ '22년) 지원 할 예정이므로 총 6년간 200여교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된다.



- 신청 학교는 주변여건과 학교특성 등을 고려 후 아래의 지원내용 등을 선택·조합하여 자체계획을 수립(Bottom Up)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필수 사업 : ① / 선택 사업 : ②, ③, ④, ⑤, ⑥

* (선택 예시) : ①, ⑥ or ①, ③, ④, ⑤ or ①, ②, ③, ④, ⑤, ⑥ 등

①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개발 및 학교운영 시스템 개선 추진 등을 지원한다.
- 학교의 인적·물적 자산 및 산업 여건 등을 고려(SWOT 분석 등)하여 특화하려는 인력양성 유형에 맞춘 학과재구조화* 및 다양한 산학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 당해 사업을 통해 학과개편 계획 마련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보통교부금 신청 가능 (중등 직업교육 비중확대 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함께하는 직업계고 브랜드(미래 산업수요

전망을 고려한 발전 로드맵 제시 등) 구축 및 학교의 특성과 전통을 고려한 특색있는 학교발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② 흥미롭게 경험하는 실전수업

-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젝트기반 수업 활성화 지원한다.
 - 프로젝트 유형별(단일교과형, 교과융합형, 실무형 등) 수업모형 운영 및 창의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창작실이나 미디어 제작실 조성 지원하려는 것이다.
 - ※ 장소에 구애없이 제작이나 창작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첨단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형 협력학습, 프로젝트형 협력학습 교실 조성 등
-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학습공간 마련과 교과 교실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 학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벽미화와 구성원의 기분이 좋아지는 학생 생활·편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 학생 휴게실(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 화장실 및 복도 꾸미기 등과 즐거운 학교생활 여건조성을 위한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 및 예술 동아리(연극, 합창 등) 시설 등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④ 이웃과 함께하는 학교

- 학교 공원조성 및 지역주민 대상 평생학습실(실습실 등) 형태의 교실 구축 및 학교의 정체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 ※ 공방교실, DIY가구교실, 영상제작교실, 드론교실, 디자인 교실 등
- 지역축제 및 자원봉사(PC 점검, 농기계 수리, 환경미화 등)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⑤ **인성·기초학력 향상 지원**

-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 수준 및 학습부진 요인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학습 클리닉 운영 및 학생의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 학습부진 학생(1학년~2학년)을 위한 무학년제 정규·방과후 교육 지원
; 교과교실제(학습 보조강사 채용), 방과후 대학생 학습 멘토링 운영 등

- 더불어 학교 공동체로서의 타인에 대한 존중, 소속감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학생-학생간, 학생-교사간 관계중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학생-학생) 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연극, 합창, 난타), 애플데이, 선·후배간 멘토링 등
- ◆ (학생-교사) 사제동행, 예절교실, 칭찬릴레이, 문화체험, 학생 우수작품 전시 등
- ◆ (학생-학부모) 학생-학부모 힐링캠프, 마음전달하기(감사편지, 세족식) 등
- ◆ (학교-지역) 지역사회 봉사(벽화그리기, 사회복지시설 봉사)

- 또한,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하여 학생 참여 중심 교실수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과학교과(문제해결능력), 국어/영어교과(의사소통능력), 사회/도덕교과(건전한 직업의식) 등의 통합 수업을 위한 보통교과-전문교과, 전문교과 간 융합교육



교과 융합형 교실수업



학생 참여 중심 교실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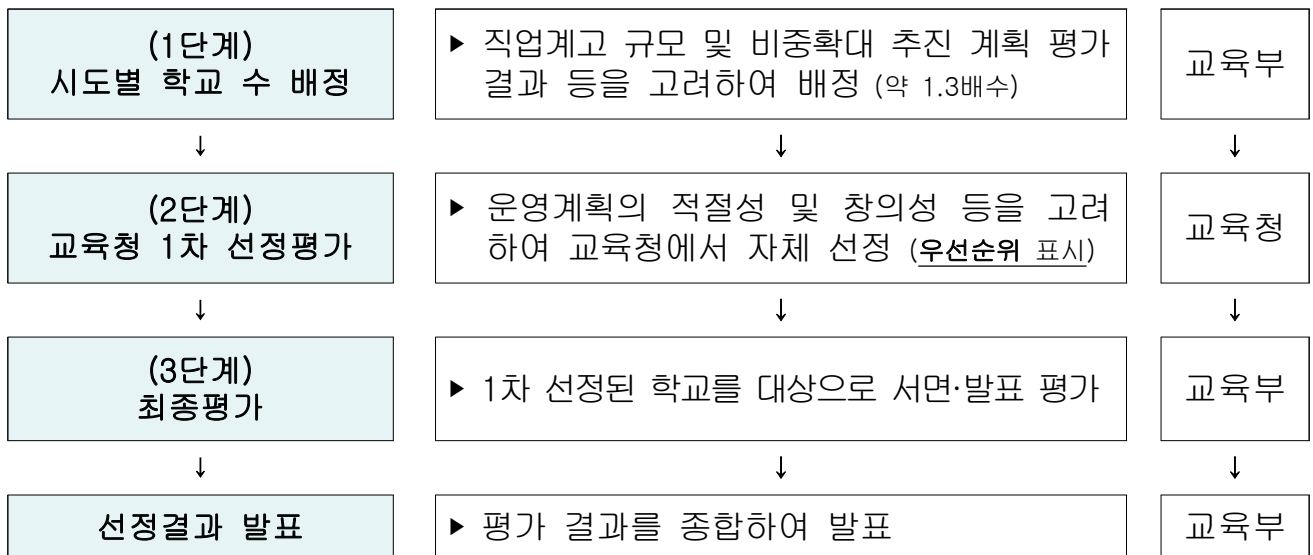
교실수업 발표회

⑥ **성공적인 취업(사회진출) 지원**

- 학생들의 취업 진로경로 개발 및 학생·학부모의 고졸 취업 인식 제고하기 위한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고
- 전문 기술력 신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및 교원의 실기지도 역량 함양도 지원한다.

< 학교 선정 학교 절차 >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은 1단계 시도별 평가 대상 학교 수 배정과 2단계 시도별 자체평가 진행 후, 3단계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한다.

- 1단계 시도별 학교 수는 교육부에서 시도별 직업계고 규모 및 시도에서 제출한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추진 계획’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정 (약 1.3배수) 하고,
- 2단계는 교육청에서 시도에 배정된 학교 수에 따라 자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학교를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선정하게 된다.
 - 이때, 입학생 모집 상 어려움이 있고, 학업 중단·위기 및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 높으며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를 우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3단계에서는 시도별로 1차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 종합 컨설팅 및 연수 제공 개요 >

영역	컨설팅	연수	대상	비고
학교경영 및 리더십	○	○	관리자	필수
직업기초능력 향상 교수학습 개선		○	교원	필수
교원 취업역량 함양	○	○	교원	필수
학과개편 추진(인력양성유형 설정) 전략	○		관리자, 교원	선택
프로젝트 수업 등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	○	교원	선택
인성 활성화 방법		○	교원	선택
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원	선택
단위학교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		교원	선택

- 또한, 매직 사업에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유형설정, 교육과정(NCS), 교수-학습 방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 컨설팅과 체계적 연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자율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직업계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을 통해 직업계고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 사업의 성공적 진행과 함께 기 수행 중인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직업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사업계획서 접수(17.4.11) 절차를 거쳐 ‘17년 4월말까지 선정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붙임
지역별 직업계고 현황 ('16년 KEDI 통계기준)

시도	마이스터고			특성 화고			종 합 고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서울	4	99	1962	70	1,912	47,915	-	-	-
부산	3	87	1739	35	911	21,930	-	-	-
대구	3	76	1537	16	586	16,147	-	-	-
인천	2	42	818	26	749	20,780	-	-	-
광주	1	12	237	10	303	9,116	2	79 (51)	2,318 (1,475)
대전	2	48	843	10	321	9,098	-	-	-
울산	3	60	1311	8	242	7,504	-	-	-
세종	-	-	-	1	19	453	1	32 (11)	743 (233)
경기	2	50	980	71	2,051	54,855	38	912 (364)	25,143 (9,641)
강원	2	31	589	21	380	8,965	11	184 (79)	4,805 (1,805)
충북	3	49	892	23	520	14,385	-	-	-
충남	4	55	1017	24	477	12,341	9	225 (110)	6,460 (3,103)
전북	3	78	1553	26	496	12,674	11	156 (60)	3,145 (1,188)
전남	4	65	1170	44	752	16,554	-	-	-
경북	4	137	2643	50	662	16,333	1	8 (3)	78 (40)
경남	3	39	767	31	616	14,800	-	-	-
제주	-	-	-	6	145	3,922	4	90 (54)	2,681 (1,584)
계	43	928	18,058	472	11,142	287,772	77	1,686 (732)	45,373 (19,069)

※ () 일반고(구, 종합고) 현황 중 직업반 학급수 및 학생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실천노트 공모 우수사례 시상

-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 찾아낸다 -

□ 사례

- #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니 사용하는 양이 많이 줄었고, 나도 같이 절제 되었다. 재미까지 느껴지면서 매일매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도 덜 아프고, 목도 덜 아팠다.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덜’ 친해진 듯해서 좋았다.”(경기 신평초등학교, 전지은)
- #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우산이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우산은 비가 올 때는 필요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필요가 없듯이, 스마트폰도 나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없어져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경기 발곡중학교, 이강은)
- # “방학동안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싶었을 텐데... 이 캠페인을 통해 열심히 조절해 줘서 (나에게)고마워! 앞으로도 사용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싶다.”(경기 송호고등학교, 이병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전국 유아·초등·중등·고등학생에게 지난 겨울방학 동안 일기장 형식의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노트’를 보급하고, 우수 실천사례를 심사·선정하였다.

- <ARE YOU SMART?>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실천노트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움말이 곁들여진 노트이다.
- 올해 공모결과, 전국 65개 학교에서 1,036건의 실천노트가 접수되었으며, 미래부는 실천노트 기획자(교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심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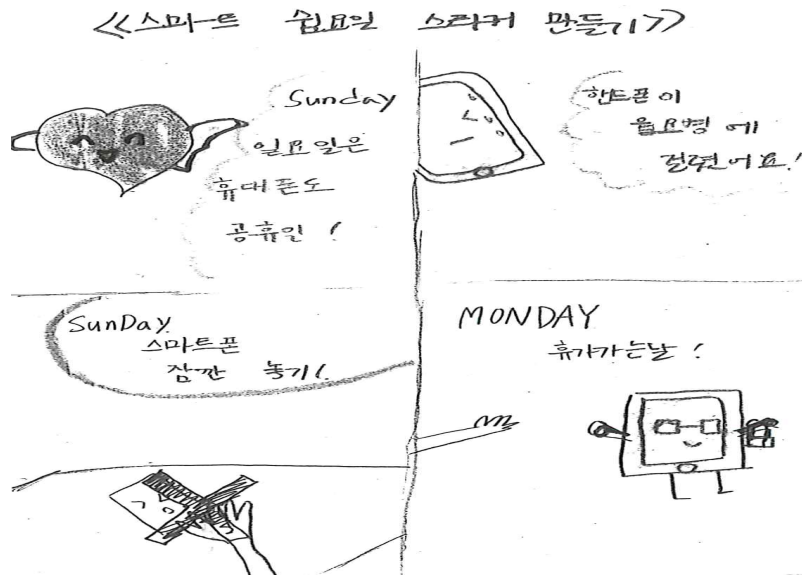
거쳐 13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개별 시상하였다.

- 우수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걱정과 비해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 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 자발적으로 성실히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일은 스마트폰 바른 사용 습관을 갖추는 것” 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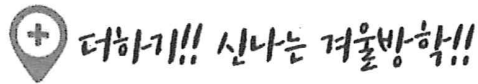
붙임 1. 수상자 목록 1부.

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실천노트 우수작품 사례(발췌) 1부. 끝.

구 분	상 격	학교명	성명
대상 (3)	교육부 장관상	경기송호고등학교	이병찬
	미래부 장관상	경기발곡중학교	이강은
		하남신평초등학교	전지은
우수상 (10)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고등)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수연
		김천여자고등학교	이정민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중등)	대구수성중학교	이유나
		경화여자중학교	이현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초등고)	대구대곡초등학교	권지민
		대전성전초등학교	이예빈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초등저)	서울금화초등학교	신비
		제주이도초등학교	이정빈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 (유아)	으뜸 과학 유치원	정세현
		사임당 어린이집	이신혜
총계	13점		



[우수작품] 신평초등학교 전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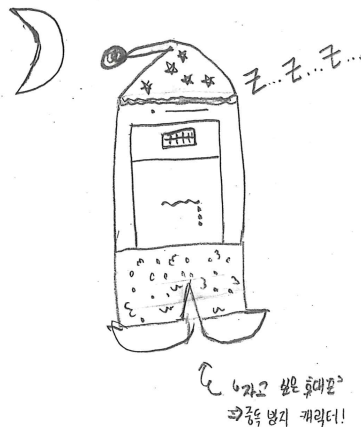
Think about it!!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우산 이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우산은 비가 올때는 필요하게만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때는 필요없듯이
스마트폰도 나에게 필요할때도 있지만
나에게 없어야 할때도 있기 때문이다.

[우수작품] 발곡중학교 이강은



[우수작품] 송호고등학교 이병찬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단체 선정

- 41개 사업 40억 원. 수제화 거리, 봉제 거리, 전통시장 등 경제적 삶의 공간 활력 제고 및 강원도 고랭지 화전민 예술캠프 등 국내 여행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과 함께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한('17. 1. 18.~2. 8./22일) 결과, 최종적으로 41개 단체('16년 우수 6개 단체 포함)를 선정하여 총 3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 등이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총 24개 사업, 28억 원을 지원했다.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 창신동 봉제 거리, 옛 구로공단 근로자 숙소 인근, 인천 송의평화시장 등 경제적 삶의 공간에 문화예술로 지역주민 발길 이끄는 프로그램

올해는 어려운 경기 여건을 반영해,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에 문화예술로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성동문화재단'은 400여 곳의 수제화업체가 모여 있는 서울 성수동 수제화 거리 일대에서 수제 웨딩슈즈 전시, 수제화 무료병원 운영, 공연, 장인의 공방 탐방 등으로 구성된 '매마수 풋풋(foot foot)한 성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대문구 창신동 봉제 거리 일대에서는 '(주)아트브릿지'가 내·외국인 봉제업 종사자들과 동대문시장으로 배달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상과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나는 봉제로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산업공단으로 이름을 날렸던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는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 '가리봉봉 아지(z)트'를 운영한다.

이밖에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 1971년에 만들어져 호황을 누리다가 지금은 상권이 침체된 인천 남구 송의평화시장에서 입주 예술가들이 만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부산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숨겨진 골목 탐방, 강원도 고랭지에 정착한 예술인과 함께하는 화전민 예술캠프, 정선의 삼탄아트마인 문화예술프로젝트 등 여행 활성화도 도모

아울러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도 선정됐다. 지역 문화예술인이 직접 여행객들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탐방하는 ‘(주)핑크로더’의 ‘부산 예술가와 만나질, 일단 탑승 묻지마 예술여행’은 ‘문화가 있는 날’도심 탐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원도 태백시 등에서 열리는 예술단체 ‘그냥예술’의 ‘1000의 고원에서 사나흘’은 고랭지에 정착한 예술인들이 외지인들을 초청해 작업공간을 개방하고, 함께 캠핑을 하는 예술 치유여행프로그램이다. 또한 정선군의 삼탄아트마인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치유의숲에서도 관광객과 도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숲속 힐링콘서트 쓰담쓰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이 부족한 10개 지역 대상 4월 말 재공모 실시

이번 공모에는 총 456개 사업이 접수해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1차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88개 단체는 전문가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했고,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35개 단체(2016년 우수 6개 단체 별도)가 선정됐다. 기획의 참신성과 ‘문화가 있는 날’ 특화 여부, 실행 가능성과 단체의 추진능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 반영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원도 지역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울산, 거제 등 조선업 경기 침체 지역도 배려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번 선정 결과, 광역시·도 중 인구 및 면적과 대비해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4월 말에 다시 한번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쉽게 최종 선정에 탈락한 단체들도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계획서로 다시 응모할 수 있고,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기획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2017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원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장 소 형	-	6	-	-	1	2	1	1	-	2	5	-	-	1	1	1	-	1
콘텐츠허	3	2	1	1	1	-	-	-	1	4	1	1	1	-	1	1	1	-
계	3	8	1	1	2	2	1	1	1	6	6	1	1	1	2	2	1	1

*붉은 색 표기 지역은 4월 말 재공모 실시 예정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스포츠시설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사이트(<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17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 선정단체 현황

2017 지역 특화프로그램 사업 선정단체 현황

□ 장소 중심 특화형

연번	지역	단체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	서울 종로	(재)종로문화재단	원데이, 종로문화산책	종로구 일대 문학투어, 문학특강, 시인의 언덕 감성문화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서울 종로	(주)아트브릿지	신나는 봉제로 예술여 행	창신동 봉제거리 일대에 거주하는 봉제업 종 사자 및 배달원 등을 대상으로 따뜻한 밥상과 공연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3	서울 성동	(재)성동문화재단	매.마.수. 풋풋 (foot foot)한 성동	450여 개 수제화 업체가 밀집해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 일대에서 수제 웨딩슈즈 전시, 공연, 수제화 무료 병원, 장인 공방 체험 등을 운영 하는 프로그램
4	서울 마포	축제행성	예술로 목욕하는 날	옛 목욕탕 건물인 행화탕을 거점으로 아현동의 역사와 삶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주민 참여형 공연, 전시 프로그램
5	서울 양천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사소한 하루', 수요일	목2동 골목을 중심으로 인문학, 음악공연, 영화, 전시, 커뮤니티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6	서울 구로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가리봉봉 아Z트	옛 구로공단 가리봉 공원을 중심으로 봉제산 업의 상징물인 미상을 통한 문화체험 및 투어 프로그램
7	인천 남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송의평화시장 대모험	송의평화시장 내 입주 상인, 예술가, 주민들이 만드는 '놀러가는 시장'으로 원예, 농업, 목공, 자원재활용 등이 접목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8	광주 동구	(주)잇다	수요일N 영화(榮華)롭게 만원(滿員)극장	광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관극장인 광주극 장에서 펼쳐지는 7080 추억의 영화 등 문화예 술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
9	광주 남구	쥬스컴퍼니 * '16년 우수팀	1930 양림쌀롱	광주 근대를 소재로 다양한 쌀롱 아티스트의 거리예술, 쌀롱 예술을 통해 차와 시, 공연, 음악, 영상, 패션 등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10	대전 유성	(주)플래닌	달밤소풍 ; 청춘들의 휘게 라이프	청년, 시민들이 원하는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휘게 (hygge) 달밤 야외 축제
11	울산 동구	(재)울산문화재단	해오름 울산 대왕암 문화 놀이터	'해돋이 역사기행'으로 선정된 울산 대왕암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공연, 체험, 아트마켓을 만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 공연 프로그램
12	경기 수원	발레STP협동조합	발레, 수원을 물들이 다	산책로, 건널목 등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발레 버스킹 퍼포먼스와 공연, 체험프로그램
13	경기 안양	(사)코리아콘서트오 케스트라	사방팔방 통통통	안양 8경 중 5경인 수리산 담배촌 뒤뜰이골 역사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과 풍물패를 통 한 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14	강원 춘천	(사)춘천마임축제 * '16년 우수팀	물 위의 화(火)루밤 '물(水)화(火)일체'	춘천 수변공원 야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 과 시민 참여형 아티스트 작품으로 구성된 '물 (水)화(火)일체' 프로그램

연번	지역	단체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15	강원 원주	(재)원주문화재단 * '16년 우수팀	매,마,수! 시장에서 놀자!	에어로빅반, 건강댄스팀, 어린이 벨리댄스, 통기타동호회, 직장인밴드 등 장르불문 문화예술 생활동호회의 한판 축제
16	강원 강릉	파랑달협동조합	명주, 수요일엔 빨간 리본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된 명주동 골목을 중심으로 시민, 예술가, 문화상점들이 만드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17	강원 영월	(재)영월문화재단	찾아가는 동강마을 방송국	라디오부스 설치로 DJ가 운영하는 마을 라디오 공개 방송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경연 등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18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삼탄아트마인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페스티벌 <소풍>	폐광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에의 전시, 음악, 향토음식이 합쳐진 융복합 페스티벌
19	전북 부안	휘목미술관	휘목미술관과 떠나는 미술동화 예술 여행	미술로 그리는 내가 만드는 동화책 발간 체험 및 작가와의 만남,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20	경북 포항	(재)포항문화재단	영일대 문화로 너울지다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 버스킹 무대존을 구성한 다양한 문화 장르 체험 프로그램
21	경남 거제	(재)거제문화재단	옥포 수변공원 - 문화가 잇데이	옥포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거제도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 체험, 영화, 공연프로그램
22	제주 서귀포	자작나무숲	숲속 힐링 콘서트 "쓰담쓰담"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펼쳐지는 세미클래식 공연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차롱도시락을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힐링 프로그램

대한민국 대표 쌀가공식품에 도전하세요!

- 농식품부, 「2017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

《 주 요 내 용 》

- ◆ 농식품부, 우수한 쌀가공품 TOP 10을 선정하는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하고, 3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목적) 맛·품질·시장성을 고루 갖춘 대표 쌀가공품 선정·홍보로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 유도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추진일정) 접수(3.30일까지) → 3차 평가 실시 → TOP10 선정·전시(5월) → 사후활동 평가 및 시상(11월)
 -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쌀가공품 개발을 통해 쌀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처 창출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맛·품질·상품성을 고루 갖춘 쌀가공품 TOP 10을 선정하는 「2017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한다.

○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쌀가공품 품평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김남두 회장)가 주관하여, 떡·면·과자·도시락·주류 등 다양한 품목에서 대표 쌀가공품을 발굴하는 행사이다.

□ 「쌀가공품 품평회」에 출품 가능한 제품은 '17. 2월 기준 시판중인 제품으로, 원료 중 쌀 함량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쌀 함량이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원료를 100% 쌀로 대체하는 경우도 출품 가능하다.

□ 접수는 사업 주관협회인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0일(목)까지 받는다.

○ 접수방법 : www.krfa.or.kr 접속 → 쌀가공품 품평회 신청 바로가기

□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쌀가공품은 소비자와 현장평가 위주로 품질·선호도·위생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유통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여 시장성 높은 상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은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하여 식감·소비자 선호(디자인 등)·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또한, 올해는 TOP10 선정 제품을 쌀가공식품산업대전(5.16~19)에서 선보이고, 선정 이후 기업의 마케팅 활동(홍보·판매 등) 및 소비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여, 기업의 자발적 마케팅·홍보를 유도할 예정이다.

○ 선정 제품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상·협회장상 및 부상이 수여되며, 쌀가공품 관련 박람회 등에 우선참여, 영상제작 등을 통한 홍보, 유통채널 입점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과거 TOP 10 선정 제품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신장 등 비즈니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15년 선정제품의 선정후 1년간 매출액 평균 신장률 : 약 32%

□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쌀가공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식품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쌀가공제품이 출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2017 제10회 쌀가공품 품평회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가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 쌀가공식품을 선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접수마감

2017.3.30 (목) 까지



2017.3.30(목)까지

참가신청

- 서류 접수 : 2017.2.23(목)~3.30(목)
- 접수 방법 : www.krfa.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평가 대상 : 쌀함량 최소 30% 이상이며 국내 제1차산업에서 생산한 쌀가공품(입제당 출품 품목군이 다름 경우 복수 출품 가능)
*단, 불현양이 계층의 30% 이상에서 백미로 쌀과 대량판매되는 현미로 쌀로 100% 대체하는 경우, 선양산(수원지역에서 계층의 30% 이상에서 쌀을 가공한 쌀)을 기본 재료로 사용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기품질검사서, 품목제조보고서, 회사 및 제품 소개서, HACCP 인증서(선택)
- 문의처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경영기획부 김다영과장
070-4048-1368 / dykim@krfa.or.kr

* 접수 완료 후 제품 견본 5점을 품평회 접수마감일까지 당 협회로 보내주셔야
접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시상 및 상금

■ TOP10 시상 : 장관상(7점), 협회장상(3점)

구분	시상	건수	상금(천 원)
TOP 10 상	장관상	7	5,000
	협회장상	3	3,000
	계	10	44,000

* 시상금 및 상금액은 농식품부 평가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진행일정

- 서류 접수 : 2017년 3월 30일 (목) 까지
- 1차 평가 : 2017년 4월 초
- 2차 평가 : 2017년 4월 중순
- 3차 평가 : 2017년 4월 말
- TOP 10 발표 : 2017 쌀가공식품산업대전(RICE SHOW), 5.16(화)~5.19(금)
- 사후 활동평가 : TOP10 선정 이후~ 9월 말
- 소비자 온라인 투표 및 TOP10 선정업체의 마케팅 활동 평가
* 사후 활동평가를 통해 TOP10에 사후등급이 결정됩니다

심사방식

신정 접수 : 입제 → 협회 (올바른지)

1차 평가 : 유동전문 심사위원 평가 → 3배수 선정

2차 평가 : 소비자 선호도 평가(50)

3차 평가 : 위생, 환경, 경영상태 등 현장평가(50)

3차 평가 : 심사위원 종합 평가 → TOP10 선정

TOP10 발표 : 2017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사후활동평가 : TOP10 시상등급 결정 → 장관상 등 시상등급 추후 확정

* 유동전문위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쌀가공품 품평회 TOP10 온라인 채널

- 홈페이지 : www.krfa.or.kr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rfa_blog
- 카카오 스토리 : <http://story.kakaocorp.com/krfa>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ricefood10>

여러 TOP10 선정제품 둘러보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The Korea Rice Foodstuffs Association

내게 필요한 환경정책은? 기업지원 안내서로 쉽게 찾기

-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분야 59개 제도 담은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발간
- ◇ QR 코드를 통한 전자책(E-book) 열람으로 휴대성 강화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지원제도를 소개한 ‘2017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를 3월 13일 발간했다.

- 이번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환경기술 연구개발(R&D), 인증·검증, 금융·판로, 해외진출·수출, 전문인력 교육, 친환경생활 등 6개 분야의 59개 제도를 수록했다.

□ 책자에는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된 환경보건 및 안전 분야의 지원제도 내용을 추가하고, 환경 분야 인증제도의 개편에 따른 내용 등도 새롭게 다뤘다.

- 환경관리 우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환경책임보험금 지원사업,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어르신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사업 등 환경보건·안전 분야 제도를 안내한다.
- 또한 올해 초 환경 분야 인증마크가 통합됨에 따라 마크 도안 변경에 따른 내용이 수록되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인증절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 이 외에도 2017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산업계 친환경구매 지원제도 등 올해 환경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환경정책과 정보를 수록했다.

□ ‘2017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www.keiti.re.kr)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또한, 큐알(QR)코드를 활용해 전자책(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가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환경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2017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표지 및 목차.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표지 이미지>

CONTENTS	
www.keiti.go.kr	
R&D	11 융합분야 환경기술개발사업 12 환경산업 신산업 기술 개발 사업 13 환경정책지원 공공 기술 개발 사업 14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15 토양 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7 미래융합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18 생활환경 환경보건 기술 개발 사업 19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 개발 사업 20 폐차량 배기장치 기술 개발 사업 21 조류 감시 및 제거용 환경기술개발 실용화사업 22 식량기술 안정화 기술개발사업 23 국민위생안전 대책 기반분야 식품 안전 기술개발사업 24 생활다양성 복합 지역개발 관리 기술 개발 사업
인증·검증	27 환경마크 인증 29 환경마크 확대인증 지원 30 환경마크인증 지원 32 중소기업 제품과 환경친화적(친환경) 제품 지원 33 녹색인증 인증 35 중소기업 인증 36 제2차산업지원 지원 사업 38 신기술인증·기술검정 40 환경기술 인증확인 41 녹색인증 43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 44 어린이환경안전 환경안전인증 46 중소기업 환경안전 제품 지원 48 중소기업 환경안전 제품 지원사업
금융·판로	51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53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55 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지원 57 환경산업기술 융합지원 자금 60 녹색채권 발행지원 62 녹색채권 확대 발행 지원
금융·판로	63 기업 환경경영 컨설팅, 그린업(Green-up) 환경경영지원사업 64 혁신형 제조기업 지원사업 66 영세 중소기업 환경경영 확산 지원 67 중소기업 환경경영 확산 지원 68 환경경영 우수 기업 지원 69 환경산업인재지원
해외진출·수출	73 계도제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75 해외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77 해외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 80 해외 환경산업협력사업 지원 82 환경기술 국제 유동 촉진 사업 지원 84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86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88 유망 수출기업 지원사업
인력·교육	89 자식기업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90 환경경영컨설팅 컨설팅 지원사업 92 환경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93 환경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94 환경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95 환경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96 환경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친환경생활지원	103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104 산업계 친환경제품 의무 구매 105 녹색제품 구매 지원 106 녹색제품 구매 지원 107 녹색제품 구매 지원 108 녹색제품 구매 지원 109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0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1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2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3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4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5 녹색제품 구매 지원 116 녹색제품 구매 지원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 목차>

1.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의 주 사용자는?

- (기업) 벤처, 에코인테리어, 해외시장 진출, 환경 컨설팅 등 환경 경영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단체) R&D 기술개발, 산업화, 실증화 사업 수요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연구단체가 참고합니다.
- (개인) 벤처 등 창업 준비, 환경산업 연계 교육, 친환경 소비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2. 2017년 기업지원제도 안내서의 특징 및 장점은?

- QR 코드를 통한 E-book 열람이 가능케 하여 수용자의 편의성과 휴대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는 상담부스에서 기업지원 제도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E-book 열람을 안내하여 책자 과대 발간을 지양하였습니다.
- 환경기술 성능확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등 각종 인증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내게 맞는 기업지원제도”라는 심리테스트 형식의 연성 콘텐츠로 딱딱한 기업지원제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기업의 생애주기** : 사업아이템 기획에서 창업, 육성, 안정화 단계 까지 기업의 시작에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을 이르는 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 R&D, 인증, 친환경 생활 촉진 등 기업지원의 근간이 되는 환경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한 법. 기업지원제도 종합안내서에서는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등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원하는 직업·진로 교육을 충분히 받는다.”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3.8(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계고 비진학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청년 고용대책은 대학 재학·졸업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위주였고,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하지만, 직업계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일반계고로 유입되는 등 일반계고 내 직업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전체 청년 인구(15~29세)^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반계고 비진학자 규모는 증가^②하는 등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① ('13) 9,548천명 ('14) 9,503천명 ('15) 9,486천명 ('16) 9,428천명 ('13년 대비 1.3% 감소)
- ② ('13) 416천명 ('14) 432천명 ('15) 480천명 ('16) 528천명 ('13년 대비 26.9% 증가)
- 특히, 일반계 비진학자는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청년인력 취업여건 및 일자리 질 현황 >

유형	취업소요기간 (개월)	10인 이하 중소기업 취업(%)	비정규직 비율 (%)	임금수준 (순주대출=100)
대졸 인력	8.1	25.9	22.0	100
고졸 인력	14.9	49.2	31.6	78.5
- 일반계고 졸	16.9	53.9	36.0	72.4
- 대학중퇴	15.3	51.3	26.1	87.5
- 직업계고 졸	13.0	43.9	30.6	79.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16년)

□ 이에, 우선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위탁직업교육을 확대하여 교내 직업교육 수요 및 산업계의 고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 직업계고 비중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나 학교 설립·교원 확충 등에 긴 시간이 소요 되므로, 단기적으로 위탁직업교육을 통해 직업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감

** 고졸 수준 인력에 대해 '23년까지 210만명 초과 수요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14년)

○ 이를 위해 '수요자 친화적'인 위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교육 잠재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훈련기관·훈련과정·관련 진출 분야 등에 관한 위탁 교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 학생 선호 및 산업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종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지능정보기술 등 교육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 또한,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위탁 직업교육인 '일반고 특화과정'의 규모를 '16년 6천명에서 '17년 14천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 기존 1년 과정(8천명) 외에 6개월 과정(6천명)을 하반기 추가 개설하고 훈련 직종을 다양화하여 훈련 참여 확대

-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공립학교인 산업정보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 훈련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대 위탁 직업교육을 '16년 4백여명에서 '17년 1천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훈련기관(일반고 특화과정)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정보 학교 재학생에게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단계 훈련수당(월 20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한 직업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 두 번째로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산업정보학교,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 우수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3년간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해당 기관의 교육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HRD-net에 공개하여

훈련기관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한다.

- 또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산업정보학교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계고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을 제공한다.

- 2학년 2학기부터 1단계 상담을 제공하여 직업경로 형성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 교육 훈련, 3단계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한다.

-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일반계고 비진학자의 DB를 구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일반계 재학생 단계별 취업패 지원내용 >

	1단계 (3주 ~ 1개월)	2단계 (10개월)	3단계 (3개월)	취성패 수료 후
시 기	2학년 2학기 (9월 ~ 11월 중)	3학년 (3월 ~ 12월)	훈련 종료 이후 (1월 ~ 3월)	
서 비 스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 (IAP)수립	위탁직업교육 실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정보 지속 제공

- 아울러, 수능 직후 졸업 전까지의 시기를 활용하여, 대학 비진학자뿐 아니라 진학자에게도 취업특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시의 적절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구축한다.

- 일반계고 진로교사에게 고용지원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 위탁 직업교육 설명회를 통해 위탁 기관이 학생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일반계고 간 MOU를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교 내 고용서비스가 전달 되도록 한다.

- 구체적으로 일반계고는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가 교내에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고용센터는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 “직업계고가 직업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고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실제 대학진학을 원치 않음에도 일반계고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진로탐색·직업교육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 충분한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초기 노동시장 적응을 돕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 나눔터

- 삼성생명 후원 공동육아나눔터 37호점(부산 사하구) 개소 -

- 여성가족부와 삼성생명의 민관협력 사업인 『 사람, 사랑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으로 마련된 공동육아나눔터 37호점이 3월 15일(수) 부산시 사하구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10여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의 새단장(리모델링) 또는 신규 개소를 지원해 왔다.
- * '17년 상반기 중 전북 완주(38호점), 경기 화성(39호점), 경남 밀양(40호점) 개소 예정
-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이웃부모들이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22개소가 운영 중이다.
 - 부모들이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 지도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육아정보와 경험을 나누며 부모역량 높여가는 '부모교육 품앗이' 등이 이뤄지며, 장남감과 도서도 대여 가능하다.
- 삼성생명은 기업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매월 사내 컨설턴트들의 기부금 모금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송정희 삼성생명 컨설턴트 사회공헌위원장은 개소식에 참석해, "삼성생명과 여성가족부, 또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번 37호점이 개소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 사업이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성생명, 롯데, 신세계 등의 기업이 그간 아이를 키우는 일에 사회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민관협업에 참여해 왔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2012년 64개소에서 현재 12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매년 이용인원 또한 크게 증가해 2012년 14만 6,828명에서 2016년에는 51만 3,312명(349.6% ↑)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93.6%로('12년 90%) 매우 높은 편이다.
-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소통과 관계가 약화된 시대에, 이웃 간 돌봄 나눔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고,
- “점차 더 많은 지역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모든 부모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 3. 15.(수), 14:00~14:30
- 장 소 : 사하구 공동육아나눔터(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609-42 1층)
 - ※ 센터 외부형으로 3층 건물의 1층에 입주(2,3층은 도서관으로 운영, 구에서 '16년 건립)
- 내 용 : 삼성생명 후원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개소식 및 현판식 등
 - ※ 삼성생명에서 내부 리모델링, 도서·장난감 등 기자재 구입비지원
- 참석인원 : 약 50여명
 - 삼성생명,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하구청,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주민 등

□ **세부 내용**

구 분	시 간(분)		주요내용
내빈 환담 및 이동	13:45~14:00	10'	▪ 사전 환담
현판식	14:00~14:05	5'	▪ 현판식 및 기념촬영
개소식	14:05~14:10	5'	▪ 개회(국민의례),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14:10~14:13	3'	▪ 인사말씀
	14:13~14:20	7'	▪ 축 사
라운딩	14:20~14:25	5'	▪ 시설 라운딩
케익커팅식	14:25~14:30	5'	▪ 케익커팅식 및 기념촬영
프로그램 참관	14:30~		▪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참관



□ 추진 현황

○ 여성가족부-삼성생명 업무협약 체결('12.9.17)

○ 협약 내용

- (삼성생명) '12년~'17년(5년간) 총 50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 물품(장난감, 도서) 지원
- (여성가족부) 사업지역 선정 및 신규 개소 추진, 운영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행정적 지원

○ 추진 지역

2013년(10개소)		2014년(10개소)		2015년(7개소)		2016년(10개소)	
호점	시군구	호점	시군구	호점	시군구	호점	시군구
1호점	관악구(서울)	11호점	동구(인천)	21호점	남해군(경남)	28호점	당진시(충남)
2호점	청주시(충북)	12호점	서구(인천)	22호점	계양구(인천)	29호점	삼척시(강원)
3호점	세종시	13호점	달성군(대구)	23호점	산청군(경남)	30호점	도봉구(서울)
4호점	익산시(전북)	14호점	통영시(경남)	24호점	연제구(부산)	31호점	함안군(경남)
5호점	당진시(충남)	15호점	하동군(경남)	25호점	양산시(경남)	32호점	정선군(강원)
6호점	구미시(경북)	16호점	서대문구(서울)	26호점	남구(대구)	33호점	남구(인천)
7호점	사하구(부산)	17호점	보령시(충남)	27호점	서구(대전)	34호점	남구(대구)
8호점	동해시(강원)	18호점	목포시(전남)			35호점	창원시(경남)
9호점	제천시(충북)	19호점	양주시(경기)			36호점	거제시(경남)
10호점	강남구(서울)	20호점	노원구(서울)			37호점	사하구(부산)

* '17년 상반기 중 전북 완주(38호점), 경기 화성(39호점), 경남 밀양(40호점) 개소 예정

달동네 등 16곳, 새뜰마을사업으로 삶의 질 높아진다 안전집수리 등 생활 여건 개선 및 복지 등 주민자활 지원에 국비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이하 지역위)는 이 달 15일(수) 달동네 등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 '17년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선정지역(16개소)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서울(1)	금천	강원(3)	속초, 영월, 태백
부산(3)	북구, 사상, 사하	충남(2)	보령, 홍성
인천(1)	동구	전북(1)	김제
대구(1)	남구	경북(1)	영주
광주(1)	남구	경남(2)	김해, 밀양

- 이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 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 기반 시설 80%, 기타 70%)

-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5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
-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다.

구분	특성	대표지역
산간 달동네	· 산사태, 화재 등 안전 취약 · 하수도·도시가스 보급 안 됨	강원속초, 강원영월, 광주남구, 부산사하, 부산사상, 경북영주, 경남밀양
공단·공장 배후지역	· 공단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 ·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취약	인천동구, 경남김해
규제지역	· 재정비, 재개발구역 해제지역 · 미군부대주둔 등 개발제한지역	서울금천, 부산북구, 충남홍성, 대구남구
기타 불량 주거지	· 폐광, 도심공동화 등에 따른 불량 주거지역	충남보령, 전북김제, 강원태백

-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환경부 슬레이트철거사업 등)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15년 선정: 30개, ‘16년 선정: 22개)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 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인프라, 집수리 지원,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 패키지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15년 30개, '16년 22개 선정(선정 연도부터 4년간 지원)
- (사업예산) 개소 당 평균 30~50억원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특징

- (사업목표)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
 -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업을 통해 효과 극대화
- (주민참여사업) 주민이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민·관 협조) 민간기업 후원, 해비타트·건축사협회 등 단체의 자원봉사 등을 적극 유도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

□ 지원내용

- (생활인프라)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지원
-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
-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 지원

붙임2

‘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지자체		대상위치	지역특색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일원	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장시간 방치되어 오다가 ‘16년 말 해제되어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
부산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정 당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기반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
	사상구	주례2동 일원	주거지,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주택 및 공·폐가 비율이 높음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가파른 산비탈에 형성된 피난주거지로 산사태, 침수피해 등이 매년 발생
대구	남구	대명5동 일원	오랜 시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소음 등 피해가 큰 지역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고가차도, 공장에 둘러싸여 매연 및 분진발생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
광주	남구	월산동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지구 해제 지역으로 경사지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한국전쟁 시 산비탈에 형성된 지역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없어 재난위험에 대응이 취약
	영월군	상동읍 텃스텐마을 일원	과거 광산업 발전시기 허술한 축대 위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붕괴위험 지역
	태백시	소도동 일원	폐광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천제방에 접해있어 침수위험이 높음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해 공·폐가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하천 남측에 위치해 침수피해가 높은 취약지역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고 내포신도시로의 인구유출로 노후주택 및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
전북	김제시	옥산동·요촌동 성산지구 일원	과거 상업지구로 성행하였으나, 현재는 주거지로 방치된 폐가, 노후화된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경북	영주시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	경사지에 형성된 마을로 급경사로의 옹벽과 축대 및 낙석위험이 산재하고 노후주택 및 주거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일원	마을 경계에 도로, 경전철, 공항, 공단 등이 있어 소음피해가 크며, 경사지에 위치해 보행환경이 취약하고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
	밀양시	남포동 남포마을 일원	인근 철길 방음벽과 국도 등으로 소음·진동피해가 크며, 높은 노후주택 비율 및 재래식 화장실 사용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

창업 성공 신화를 같이할 관광벤처푸드테크 우수 사업 선정 결과

-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 부문별 심사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 이하 문체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이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이하 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류청로, 이하 어촌어항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용호, 이하 서울센터)가 주관사로 참여한 '2017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 개최 결과, 전도유망한 예비관광벤처부문에서 38개, 해양관광벤처부문에서 10개, 푸드테크부문에서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제7회 관광벤처사업공모전과 제2회 푸드테크 경진대회를 통합해 개최한 이번 통합공모전에서는 창의적인 융·복합 관광사업 아이디어와 푸드테크 스타트업 분야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발한 후 사업화를 지원한다. 문체부가 주관하는 일반관광벤처부문은 지난 6년간 공모전을 통해 총 344건의 사업을 찾아내고, 246건의 창업과 1,079건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해수부가 올해 처음 해양관광벤처 부문을 도입해 관광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부·농식품부·중기청이 함께 개최한 제2회 푸드테크 경진대회를 통해 푸드테크 분야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관광벤처 8.7:1, 해양관광벤처 4.4:1, 푸드테크 8.5:1의 경쟁률을 뚫고 총 58개 팀 선정

지난 1월 24일(화)부터 2월 22일(수)까지 진행된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공모전' 모집 결과에 따르면 일반관광벤처부문(예비관광벤처사업, 관광벤처사업*)은 총 362건, 해양관광벤처부문은 총 44건, 푸드테크부문은 총 85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예비관광벤처사업부문의 38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10개 사업 그리고 푸드테크 부문의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거주 청년 가점 등의 우대를 통해 예비관광벤처사업과 해양관광벤처사업을 선발해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창업 및 투자 컨설팅, 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원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예비관광벤처 38개 사업은 창업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자금 3천만 원(자부담 25%)과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올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경쟁력이 높은 사업들에 한해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말 최종 사업평가 결과를 통해 선정된 우수 기업의 사업들은 관광벤처사업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아울러 올해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관광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전문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어촌어항협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해양관광벤처 10개 사업은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2,250만 원과, 문체부와 협업한 스타트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해수부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상품으로 출시한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관광벤처 표지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관광포털인 '바다여행(www.seantour.kr)' 사이트를 통해 해양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 축제인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17. 9. 20.~26.)에 해양관광벤처기업 전용 부스를 마련해 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농식품부를 통해 선정된 푸드테크부문의 10개 팀은 시제이(CJ)의 '키친인큐베이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회, 사업화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중기청의 창업자금 지원 프로

그럼에 응모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 열리는 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등에 제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예정이다.

<부문별 선정팀에 대한 혜택>

구분		지원자격	평가절차	비고
일반관광벤처부문	예비관광벤처사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 사업화 자금 지원 (업체당 3,000만 원(자부담 25% 필수)) ○ 역량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마케팅(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관광벤처사업	창업 3년 이상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현장심사	○ 홍보마케팅비 지원 (업체당 1,400만 원(자부담 25% 필수)) ○ 문체부 장관 명의 확인증 수여 ○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 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펀드운영사 최종 결정), 클라우드 펀딩 등 투자유치 관련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예정)
해양관광벤처부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 사업화 자금 지원 (업체당 2,250만 원) ○ 스타트업 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성공, 우수사업 아이템에 해양관광벤처 표지 부여
푸드테크 스타트업 부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 키친인큐베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CJ 등 연계) ○ 서울센터 입주기획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및 농·식품 현장창업보육 지원 연계 ○ 중기청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창업 지원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예정) ○ 대한민국식품대전, 농식품 벤처창업 아이디어 제품관, 창조경제박람회 전시 지원 등 홍보 지원 ○ 농식품 클라우드 펀딩 지원 연계

* 관광벤처사업부문은 3차 전문가 현장심사(3월 말) 후 4월 초에 발표 예정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결선대회 개최(3. 23.) 및 시상(3. 30. 예정)

한편, 오는 3월 23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 결선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예비관광벤처부문의 상위 10개 사업과 해양관광벤처부문의 상위 5개 사업, 그리고 푸드테크부문의 상위 5개 사업이 결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결선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 1팀, 미래부·문체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청 각 1팀 등 우수 6개 팀을 선정한다. 아울러 오는 3월 30일(목) 결선대회 시상식에서 우수 6개 팀에게 소정의 상금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참고 1

제1회 해양관광 창업 지원 사업 공모전 개최 결과

□ 사업 개요

- (목적) 해양관광 시장 개척을 위해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공급을 주도한 해양관광 특화기업 발굴·육성
- (지원) 총 10개소(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미만 기업)를 선정, 창업자금 2,250만원, 스타트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보육프로그램 운영**
- (방식) 해수부(해양관광), 문체부(관광) 및 미래부(푸드테크)가 공동으로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 개최,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 해양관광자원을 IT 등 타기술서비스와 연계하고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예비창업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창업 7년미만 기업

□ 공모전 결과

- (접수) 총 44팀 응모(경쟁률 4.4 : 1), 예상보다 높은 관심 및 참여(예비 12, 기업 32)
- (선정) 심사위원 구성(민간전문가 등 6인)하여 1차 심사통과 20개팀을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0개팀 선정(예비 1, 기업 9)

구분	사업명	비고
IT기반 (2)	‘모뉘’ 모두의 낚시(낚시정보 공유 서비스 킬러 앱)*	
	이지 요트 에듀넷(한국형 온라인 요트교육 콘텐츠)	
체험기반 (5)	선상 어드벤처 미션 투어*	선박안전+교육 융합
	‘관상 수초화분’ 해양관광상품 개발*	기술 개발
	사라져가는 자염(煮鹽), 바다음식 여행	해외관광객 대상
	샤이니 보트 파티 세일링	
	Hotel & Seafood market 투어	청년기업
시설기반 (1)	Re-Yacht(중고요트 리모델링)	
기타 (2)	유경호의 꿈꾸는 서핑 공방*	
	‘더 요트벙커’ (요트경매+수리+복원+전시 플랫폼)*	예비창업자

*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 결선대회 참가자(5팀)

- (결선대회) 최종 10개팀 중 우수팀 5팀을 선발하여 관광벤처·푸드테크 통합 공모전 결선대회 참가(‘17.3.2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시상*

* 시상식(‘17.3.30 예정) : 총리상 및 상금 1천만원, 해수부·문체부·미래부·농식품부 장관상

각 1점 및 상금 각 5백만원 및 중기청장상 1점 및 상금 5백만원

□ 사업화 지원 계획

○(직접지원) 기업별 해양관광벤처기업 유지 등에 관한 협약서 체결 후 창업 자금 최대 2,250만원 지원(4~12월까지)

* 용도 : 콘텐츠 개발비, 창업사무 공간 조성, 홍보 및 마케팅비 지원 등

○(교육·컨설팅) 스타트업 교육(3월말 예정),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교육(희망교육, 3~5개 분야) 및 컨설팅 지원(기업당 5회 이상)

* (한국관광공사 협력) 창업 벤치마킹 등을 위해 공사 전문인력풀, 교육시스템 등 활용 계획

○(홍보·마케팅) 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KIMA(9.20~26) 등을 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

* 해양관광포탈(바다여행), 관광벤처 사이트, 관광분야 전문지 등 활용

○(기타) 연말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과 창업 성공 예비 창업자에게 해양관광벤처기업(가칭) 표지 부여

참고 2

2017 관광벤처 · 푸드테크 통합공모전 부문별 선정 결과

부문	접수번호	사업제목
예비관광벤처	AP10191	애프터워크
"	AP10249	시골투어
"	AP10256	아워 홈스테이
"	AP10419	GPS, AR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관광 콘텐츠 사업
"	AP10432	공유부엌
"	AP10510	투어티처
"	AT10094	리얼 푸드 코리아
"	AT10159	투어라운드
"	AT10207	부자농부
"	AT10392	관광객 공간 공유 짐 보관서비스
"	AT10431	섬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형 차별화 관광 상품
"	AT10513	부산 "Shark Diving" 체험 프로그램
"	AT10517	아이러브한식
"	BP10116	부산, 증강현실(AR)로 여행하기
"	BP10170	체험학습&여행 플랫폼, 산바다 스쿨
"	BP10214	인바이트유
"	BP10366	언제 어디서든 WYSIWYG 관광서비스
"	BP10375	실시간 온라인(모바일)직거래 플랫폼서비스
"	BP10376	Pinonmap
"	BP10410	산들산들 솔바람 태교 여행
"	BP10461	Uhibbu Kuriya
"	BP10524	여행 감성 캔들 홀더 'halo(헤일로)'
"	BP10536	E-bike
"	BP10552	강원도를 팝니다
"	BT10057	Wekorea
"	BT10137	여행도움 플랫폼 티비스켓
"	BT10149	라임투어서비스
"	BT10230	바이크 투어 토탈 서비스
"	BT10294	기초 지자체 대상 투어 패스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BT10295	라이프스타일 컨시어지 사업

부문	접수번호	사업제목
"	BT10313	배시시 라이프웨어
"	BT10341	위치기반AR을 이용한 명소 탐험 플랫폼 개발
"	BT10347	조인나우
"	BT10372	아이디어 콘텐츠 파티
"	BT10381	개별관광객(FIT) 참여 이벤트(파티, 체험 등) 실시간 매칭서비스
"	BT10404	케어백스
"	BT10417	지리산 숲 여행 놀이터
"	BT10541	Mombie
해양관광벤처	SP10259	선상 어드벤처 미션 투어
"	ST10296	'관상수초' 해양관광상품 개발
"	SP10451	'모뉼' 모두의 낚시(낚시정보 공유 서비스 킬러 앱)
"	ST10353	유경호의 꿈꾸는 서핑공방
"	SP10316	'더 요트벙커' (요트경매+수리+복원+전시 플랫폼)
"	SP10377	사라져가는 자염(煮鹽), 바다음식 여행
"	SP10263	Re-Yacht (중고요트 리모델링)
"	ST10502	샤이니 보트 파티 세일링
"	SP10395	이지 요트 에듀넷 (한국형 온라인 요트교육 콘텐츠)
"	ST10233	Hotel & Seafood market 투어
푸드테크	푸드테크-39	곤충단백질을 이용한 글루텐프리 반려동물 수제간식
"	푸드테크-55	내몸에 꼭맞는 맛있는 저염식 '맛있저염'
"	푸드테크-46	요리전문가 쿠킹클래스 공유 플랫폼, 공공의주방
"	푸드테크-82	리얼맘(Real Mom)
"	푸드테크-70	매스클루시비티 청정 나물 공정
"	푸드테크-27	수저받침으로 사용 가능한 일회용 물티슈 보급(판매 & Licensing) 사업
"	푸드테크-20	스마트헬스자판기
"	푸드테크-69	프리미엄 김스낵의 선물시장 및 관광객시장 개척, 글로벌 진출
"	푸드테크-57	helpingfarm
"	푸드테크-43	음식 주변의 파리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제거가 가능한 신개념 해충퇴치기

* 사업제목은 추후 변경 가능